



성장 넘어 진화로...콘텐츠 파워 폭발적으로 키울 2022년

동아미디어그룹 2022년 시무식...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사장 “여러분과 일하는 저는 참 운 좋은 사람” 감사의 뜻 전해

“올해 우리는 성장을 뛰어 넘어 남다른 진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콘텐츠 파워를 폭발적으로 키우고 독자 구조를 단단하게 만들어야겠습니다.”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사장은 1월 3일 오전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 20층 CC 큐브에서 열린 2022년 동아미디어그룹 시무식에서 “임인년 호랑이와 같은 기백으로 기운차게 도전하고 성취하자”며 이렇게 말했다.

진실과 꿈을 전하는 탁월한 콘텐츠

이날 김 사장은 동아미디어그룹 가족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며 신년사의 문을 열었다. 김 사장은 “여러분과 함께 일을 해서 저는 참 운이 좋은 것 같다”며 “지난해 우리는 보도와 제작, 사업 등 모든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를 성장을 넘어 진화하는 해로 만들기 위한 3대 경영방침을 제시했다. 그 첫째는 ‘진실과 꿈을 전하는 탁월한 콘텐츠’였다.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사실에 입각한 뉴스를 전하고, 우리 콘텐츠를 통해 재미와 감동을 느끼며 더 나은 미래를 그리게 하자는 것. 김 사장은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사실에 입각한 치우침 없는 보도가 중요하다”며 “철저한 취재를 통해 흐릿하거나 왜곡된 것들을 걷어내고, 신뢰할 수 있는 진실을 전하자”고 당부했다. 또 “우리 사회의 단절과 무관심을 소통과 공감으로 바꿀 수 있는 콘텐츠가 중요하다”며 “재미와 감동이 넘치는 탁월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집중하자”고 말했다.

두 번째 경영방침은 ‘더불어 더블(double)로 가는 2022년’이었다. 동아미디어그룹 구성원들이 더불어 힘을 합치고 두 배의



1월 3일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2022년 동아미디어그룹 시무식에서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사장(가운데)과 수습사원들이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수습사원은 왼쪽부터 제작본부 하해찬 수습PD, 보도본부 조민기 수습기자, 미래전략연구소 최호진 수습기자, 편집국 송진호 수습기자.

사진=편집국 사진부 김재명

시장 가치를 만들어내는 주인이었다. 김 사장은 “그룹 내 계열사 및 조직, 그 안의 선배와 후배, 그리고 우리 밖의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더불어 일하며 최대의 시장 가치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경영방침 메시지는 ‘각자가 서로에게 최고인 나’였다. 김 사장은 “동아미디어그룹 구성원들은 한 명 한 명이 최고여야 한다”며 “내가 맡고 있는 일에 관해서는 나를 뛰어넘을 자가 없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높이는데 열정을

다하자”고 말했다.

동아일보 채널A, 독자 양 날개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동아미디어그룹 구성원들이 일군 성과도 재조명됐다. 김 사장은 “동아일보는 히어로콘텐츠 <환생> 보도를 통해 나누는 삶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며 “‘대장동 사건’ 등 보도에서도 동아일보와 채널A는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취재로 특종을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또 <강철부대>와

<금쪽시리즈> 제작, 신규 OTT 매출 증대 등 사업 분야 성과를 하나하나 언급했다.

한편, 이날 시무식에서는 채널A 10주년을 맞아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 1층에 새롭게 문을 연 ‘오픈스튜디오’에 대한 김 사장의 ‘폭풍 칭찬’이 이어져 화제를 낳았다. 김 사장은 “오픈스튜디오와 관련해 강수진 보도본부장께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다”며 “오픈스튜디오를 새로 만들자는 아이디어도 그렇지만, 원래 있던 투명엘리베이터를 없애면 어떨겠느냐는 도전적이

고 창의적인 생각을 말하고 추진해 멋진 결과물을 만든 게 참 대단하다”고 말했다. 김 사장이 “제 마음 속 오픈스튜디오는 ‘수진 오픈스튜디오’라고 말하자 장내 곳곳에서 웃음이 쏟아지기도 했다.

지난해 시무식은 코로나19로 온라인 개최됐지만, 올해는 ‘2022년 DAMZ(DAMG+MZ 세대)’라는 주제에 맞춰 2021년 수습사원 대표들이 참석하는 오프라인 행사로 열렸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김준일



영상으로 포부를 밝히는 수습사원들

2022 DAMG POINT

2022년 동아미디어그룹 3대 경영방침

◆ 진실과 꿈을 전하는 탁월한 콘텐츠 ◆

진실과 꿈을 전하는 탁월한 콘텐츠

동아미디어그룹의 정체성과 비전은 지난 102년간 같았다. 보도를 통해 진실을, 제작을 통해 꿈을 전하는 탁월한 콘텐츠 기업이 되는 것이 그것이다. 특히 올해는 ‘선거의 해’인만큼 그 어느때보다 오직 사실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불편부당 시시비비’의 동아 저널리즘 정신이 중요하다.

또 사회적 양극화에 코로나19까지 더해져 갈수록 심각해지는 우리 사회의 단절과 무관심을 소통과 공감으로 바꾸려는 노력

이 필요하다는 뜻도 담겼다. 위로와 화합을 위한 어젠다 셋팅과 콘텐츠 마련에 역점을 두고 독자와 시청자들의 마음에 재미와 감동을 불러 일으킬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더욱 풍부하게 선보이자는 것.

더불어 더블(double)로 가는 2022년

2021년은 동아일보와 채널A 모두 의미 있는 흑자를 내며 동시에 성장한 원년(元年)이었다. 2022년에는 이러한 기세를 양적, 질적으로 더 힘차게 이어나가자는

의미가 ‘더블(double)’이라는 구체적 상징에 담겨있다.

신년사에서 더블어의 대상이 크게 세 가지로 제시됐다. 그룹 내 계열사와 조직의 협업, 세대 간 협업, 외부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협업이 그것이다.

특히 세대 간 협업과 관련해서는 선배세대와 후배세대가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각각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하자는 뜻을 담았다. 나이의 많고 적음, 경력의 길고 짧음을 따지지 말

고 각자가 가진 강점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격의 없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젊은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

각자가 서로에게 최고인 나

동아미디어그룹이 누가 봐도 탁월한 콘텐츠, 탁월한 사업전략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룹 내 모든 분야의 직원들 하나하나가 최고가 돼야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자신을 뛰어넘을 사람이 없도록, 스스로를 자극하고 업무

에 대한 주의를식을 갖고 노력하며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올해 동아미디어그룹은 최고의 구성원들에게 업계 최고의 대우를 하기 위해 보다 땀땀하고 공정한 평가 및 보상방식을 만들 예정이다. 능력과 성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위해 그간의 관행에서 불합리했던 점들을 고치고 합리적인 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강병규

동아미디어그룹 수습사원 22명 입문·직무교육 끝내고 현장 배치

3월 연수습, 동아미디어그룹 젊은피 역할 기대



동아미디어그룹 수습사원 22명(신문기자 6명, 방송기자 8명, 방송PD 8명)이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 오픈스튜디오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지난 11월 30일 오후, 카메라와 삼각대를 든 수습 PD 8명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공원으로 향했다. 특색 있는 인서트를 찍어오라는 교육 미션을 받은 것. 제한시간 30분을 두고 2명씩 한 조가 되어 어떻게 연출할지 잠시 고민하던 수습PD

들은 이내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공원을 누볐다. 한 조는 이날 오전에 배운 촬영기법으로 하늘을 담아내는데 집중했다. 또 다른 조는 단풍잎을 날리며 늦가을의 정취를 표현했다. 그 옆 조는 작은 물웅덩이에 발을 모은 모습을 촬영해 수줍음을

담았다. 이날 촬영 강의를 진행한 영상레이블 회사 대표 정일복 감독은 "3시간반에 불과한 짧은 교육 후 미션을 쫓는데도 상당히 수준 높은 영상이 완성됐다"며 "채널A가 좋은 인재들을 구했다"고 칭찬했다.

동아미디어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22명의 신입사원들이 입문교육과 직무교육을 마치고 수습으로 현장 배치됐다. 22명의 신입사원은 2021년 채용연계형 인턴 전형을 거친 신문기자 6명, 방송기자 8명과 방송PD 8명이다.

수습 배치 전 신입사원들은 다양한 교육을 받았다. 먼저 입문 교육은 크게 △자기와 동료의 이해 △조직의 문화와 역사, 제도 이해 △비전 설정과 공유 △사회인으로서의 기본 자세 등으로 나눠 진행했다. 일례로 '비전 설정과 공유' 부문 프로그램인 <오마주한 콘텐츠>에서는 수습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 인생 콘텐츠와 이를 '오마주'해 앞으로 만들고 싶은 콘텐츠를 소개하며 비전을 공유했다.

회사에 대한 이해 역시 입문교육의 중요 과제로 다루졌다. △DAMG 청춘스타 △DAMG 유니버스 △1000초 사사(社史) 시간을 통해 동아미디어그룹의 기본 개념과 역사, 비전을 공유했다. 특히 채널A의 개국 10주년을 맞아 <열살방송 채널A>라는 별도 시간을 편성해 채널A의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발자취를 깊이 살펴봤다.

아울러 올해 직무교육은 직군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늘려 진행했다. 기자직군의 공통교육으로는 <기자의 일터> 시리즈가 신설됐다. 업무 속에서 기자를 자주 접하는 직업인들을 초빙해 기자에 대한 이야기를 역으로 듣는 프로그램이다. 초

빙 강사로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 허규연 야구 해설위원, 김근준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장, SK이노베이션 정준영 과장 등이 나섰다. 이들은 기자와 취재원과의 관계를 날 것 그대로 설명해 교육 만족도가 높았다.

PD직군은 프로그램 제작과정 뿐 아니라 프로그램 기획부터 포스트프로덕션, 콘텐츠 유통에 이르기까지 콘텐츠의 전 밸류체인을 아우르는 교육을 받았다. 강사로는 현장에서 뛰는 선배 PD들을 적극 활용했다.

올해는 외부의 전문 스튜디오를 대관해 촬영 교육을 진행하는 등 실무교육도 전년보다 크게 늘렸다. 수습PD들은 새로 들어올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강의로 △PPL의 세계 △스토리텔링 △디지털 플랫폼과 유통을 꼽았다.

교육을 마친 수습기자들과 PD들은 현재 동아일보 편집국과 채널A 보도본부, 제작본부, 드라마플러스본부에 배치돼 있다. 조현서 채널A 수습PD는 "수습기간을 통해 드라마 제작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이승우 동아일보 수습기자는 "수습 기간 동안 새로운 경험을 할 생각에 설렌다"고 전했다. 꽃피는 3월, 연수습과 함께 동아미디어그룹의 기자와 PD로 거듭날 이들을 기대해본다.

경영전략실 인재경영팀 윤신영

인재육성 프로그램 'DNA 프린티어' 전면 개편

연수 주제, 형식 제한 없애...근속연수, 어학기준도 대폭 완화

동아미디어그룹의 인재육성 프로그램인 'DNA 프린티어'가 새롭게 바뀌었다. 이름은 그대로지만 사실상 전면 리모델링에 가깝다. 먼저 연수의 주제와 형식에 대한 제한을 없앴다. 구성원이 새롭게 시도해 결과물을 만들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다면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줬다. 연수생이 전체과정의 1부터 10까지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것. 또 근속연수, 어학기준을 완화해 지원 문턱도 낮췄다. 도전의지와 실행력을 갖춘 채 '최고인 나'를 지향하는 구성원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자는 취지다. DNA 프린티어 '시즌2'는 과연 어떻게 달라진 것일까.

'프로젝트'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과거 사내에서는 흔히 '연수=해외 대학에서의 연구활동'이라는 인식이 있었 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생각은 버려도 좋습니다. 자신이 프로젝트를 구상한 뒤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면 어디든 연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의 프로젝트란 평소 해보고 싶었던 콘텐츠 제작, 비즈니스 기획 등 어떤 것이든 가능합니다. 물론 연구활동도 가능하고요. 연수 결과에 대한 사내 공유

방식 역시 기존에는 보고서 제출 형태였지만 이제는 프로젝트 결과물 제출로 바뀝니다. 명칭 그대로 '프린티어'의 성격을 더욱 강화한 것입니다.

국내 연수도 가능한가요

네. DNA 프린티어 활동에는 공간적 제약이 없습니다. 국내에서 연수활동을 해도 되고 해외에서 해도 되며, 국내 8주+해외 2주 등으로 혼합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주제의 답을 얻는데 가장 적합한 연수지를 스스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국내에도 양질의 학습 기회가 풍부하고 코로나19 이후 연수지 선택에 현실적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에 물리적 제약을 없앴습니다.

연수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기존의 DNA 프린티어는 1년짜리 해외연수와 3개월 짜리 어학연수, 1개월 이내의 단기연수인 글로벌 크리에이터 등으로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구분이 사라집니다.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수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연수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10주, 5개월, 1년 등 자신이 설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만큼이 곧

DNA 프린티어 개편

구분	기존	개편안
연수종류와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개월 / 외국 대학, 기관 등 ▶ 어학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월 / 외국 현지 어학원 ▶ 글로벌 크리에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주~1개월 / 자유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부문 통합 - 최소 1주~최대 1년 - 1개월, 3개월 등 기간의 틀을 없애고 본인이 해당 연수 주제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만큼 자유 설정
연수지역	- 국외	- 국내외 무관 (국내, 국외, 국내+국외)
지원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속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연수: 만 5년 - 어학연수: 만 3년 - 글로벌 크리에이터: 만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속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사 후 만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연수 공통 필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지가 해외인 경우 어학성적 제출 시 우대

연수기간이 됩니다.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속연수 3년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DNA 프린티어는 연수종류별 자격기준이 달랐습니다. 예컨대 해외연수는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사원들에게 제공됐죠. 하지만 연수종류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지원 자격도 단순해졌습니다.

어학성적 기준도 없었습니다. 연수지가 해외인 경우에 한해 공인어학성적표를 제출하면 우대합니다. 지금까지는 연수종류와 무관하게 공통 어학기준을 요구했지만요.

심사과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인재육성위원(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프레젠테이션이 신설됐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지원자들은 프레젠테이

션을 통해 본인의 프로젝트 계획과 목표, 진행의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과정에서는 일종의 역멘토링(리버스 멘토링)도 이뤄질 것입니다. 인재육성위원이 멘티, 지원자가 멘토가 돼 동아미디어그룹의 미래 동력을 찾기 위한 시도를 놓고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경영전략실 인재경영팀 남하나



〈쇼윈도: 여왕의 집〉, 이제 ‘월화드라마의 여왕’

시청률 8%(전국)돌파하며 월화드라마 1위

채널A 월화드라마 〈쇼윈도: 여왕의 집〉이 ‘월화드라마의 여왕’ 자리를 차지했다. 〈쇼윈도: 여왕의 집〉은 첫 회 시청률 2.086%(닐슨코리아 제공, 유료방송기구 수도권 기준)로 역대 채널A 드라마 첫방송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이후 지난 4일 방송된 12회차에서 8.092%(전국), 7.958%(수도권)의 시청률을 기록해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월화드라마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12회차 분당 최고 시청률은 8.82%(전국), 8.73%(수도권)까지 치솟았다.

속도감 있는 파격 전개에 연기력까지

시청률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 〈쇼윈도: 여왕의 집〉의 성공 비결로는 ‘빠른 전개’가 꼽힌다. 4회 만에 윤미라(전소민 분), 신명섭(이성재 분)의 불륜 관계를 한선주(송윤아 분)가 알게 되고 곧이어 다음 회차에서 윤미라는 신명섭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유산하게 된다. 이처럼 속도감 있는 전개 속에 매회 파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져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다. 배우들의 물 오른 연기력 역시 흥행 요인으로 평가 받는다.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종횡무진하며 탄탄한 연기력을 인정받은 배우 송윤아는 모든 것을 이룬 완벽한 여왕에서 남편의 배신으로 감정의 나락을 겪는 한선주 역을 200% 소화하고 있다.

재치있는 입담으로 예능 이미지를 구축해 온 배우 전소민도 연기 변신으로 주목받고 있다. SBS 〈런닝맨〉, tvN 〈식스센스〉 등에서 보여온 이미지를 벗어나 내연녀, 배신, 유산 등 강렬한 연기를 이질감 없이 해내고 있다는 평가다.

‘분노 유발’ 캐릭터로 불리는 신명섭 역 또한 배우 이성재의 능수능란한 연기로 완벽하게 구현되고 있다. 신명섭은 안정적인 가정과 자극적인 사랑, 이 모두를 갖고 싶어 하는 양면적인 인물로 드라마에 긴장감을 일으킨다. 한선주와 윤미라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감정을 그야말로 ‘들었다 놓았다’하며 극의 집중도를 높이고 있다.

황찬성의 열연도 눈에 띈다. 아이돌 가수 출신임이 무색할 만큼 관록 있는 배우들 사이에서도 인상적인 연기력을 선보인다. 한선주의 하나뿐인 동생이자 마음을 울리는 여자 윤미라 사이에서 어떠한 선



탄탄한 연기력으로 〈쇼윈도: 여왕의 집〉의 몰입도를 높이고 있는 배우 이성재, 송윤아, 전소민(왼쪽부터)

택도 시원하게 내리지 못하는 한정원 역을 맡아 미세한 감정 변화를 설득력 있게 그리고 있다.

범인은 과연 누구? 심리전 점입가경

첫 회부터 드레스를 입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여인을 보여줘 시청자들의 흥미

를 자극한 〈쇼윈도: 여왕의 집〉은 매회차마다 초반 사건 당시 이야기를 조금씩 드러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여인을 해친 범인이 과연 누구일지 추리하는 과정에서 시청자들의 몰입감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반환점을 둔 〈쇼윈도: 여왕의 집〉은 마

지막까지 점점 더 강력한 캐릭터 활약,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 전개를 통해 시청률 기록을 꾸준히 경신할 전망이다. 새로 쓴 월화드라마 1위 역사를 굳건히 지키길 기대한다.

편성전략본부 콘텐츠밸류업팀 최화정

새해 첫 신규 예능 〈피는 못 속여〉

이동국·김병현 가족과 황금 MC 총출동



〈피는 못 속여〉의 ‘황금 MC 라인업’ 강호동, 장예원, 김민경

채널A의 신규 예능 〈슈퍼 DNA 피는 못 속여〉(이하 피는 못 속여)가 10일 첫 선을 보인다.

〈피는 못 속여〉는 스포츠 스타인 부모와 미래 스포츠 스타를 꿈꾸는 그 자녀들 사이의 애증 관계를 리얼하게 보여주는 버라이어티 예능이다. 매주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 스타 가족들이 출연해 범상치 않은 2세 교육법을 공개할 예정이다.

〈피는 못 속여〉는 황금 MC 라인업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MC 강호동은 씨름과 방송계를 모두 접수한 천하장사이자 아들 강시후 군이 골프 유망주로 주목받는 ‘슈퍼 DNA’의 대

표 주자다. ‘태릉이 놓친 인재’로 인기 물이 중인 개구우먼 김민경, ‘만능 스포츠 여신’ 아나운서 장예원도 MC로 함께 출격한다.

〈피는 못 속여〉에는 이동국과 김병현이 스포츠 꿈나무 자녀와 동반 출연해 활약한다. K-리그 레전드 이동국은 ‘테니스 유망주’ 딸 이재아 양과 함께, 메이저리거 출신 김병현은 ‘골프 꿈나무’ 딸 김민주 양과 함께 출연할 예정이다. 〈피는 못 속여〉는 매주 월요일 밤 9시 10분 채널A에서 만날 수 있다.

편성전략본부 콘텐츠밸류업팀 최화정

완벽남 4인의 신랑수업도 기대하세요

4인 4색 웃음과 ‘희자매’ MC 활약 기대



〈신랑수업〉에 출연하는 이승철, 김찬우, 김준수, 영탁과 MC 김원희, 홍현희(왼쪽 위부터)

채널A 새 예능 〈요즘 남자 라이프-신랑수업〉(이하 신랑수업)이 오는 19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완벽남 4인방이 신랑수업을 받으며 멋진 남자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리얼 관찰 예능이다.

36년 차 국민가수 이승철, ‘반백살 피터팬’ 김찬우, ‘한류 대통령’ 김준수와 ‘국민 예비사위’ 영탁이 출연한다. 각각 결혼을 했지만 인생이 아직도 어

려운 남자, 결혼이 막연한 남자, 결혼하고 싶은 남자, 일이 바빠 결혼을 못한 남자의 좌충우돌 일상을 그린다.

스튜디오 MC로는 ‘희자매’ 김원희, 홍현희가 등판해 거침없는 입담을 선보일 예정이다. 각각 결혼 18년 차, 결혼 4년 차 두 사람은 이승철·김찬우·김준수 영탁의 2% 부족한 일상을 지켜보며 결혼 생활 ‘꿀팁’을 전수하게 된다. 신랑수업 4인방과 두 MC의 색다

른 만남에 기대가 모아지는 이유다. 제작진은 “두 MC는 스튜디오 MC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신랑수업 4인방의 일상을 지켜보며 멋진 남자 되기 프로젝트를 함께 할 것”이라며 “특급 활약을 기대해도 좋다”고 전했다. 채널A 〈신랑수업〉은 매주 수요일 저녁 9시 30분에 방송한다.

편성전략본부 콘텐츠밸류업팀 김우준

“동아미디어그룹 누구나 크리에이터” 사내 콘텐츠 페스티벌 ‘윙스’ 열린다

직군·경력·아이디어 제한 없고 가명으로 참가

동아미디어그룹 사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콘텐츠 아이디어 축제가 열린다. 오는 24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WINGS’ (윙스)가 그것이다. 아이디어만 올리면 치킨 기프티콘이 제공되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777만 원의 상금과 실제 제작, 공헌 이익 공유가 이뤄지는 흥미로운 축제다. 참가는 부캐(가명)로 이뤄져 민망할 걱정도 없다.

윙스 예고는 12월 29일 지니 및 각 계열사 그룹웨어를 통해 이뤄졌다. 윙스라는 이름은 ‘아이템을 지닌 크리에이터들에게 날개를 달아준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아이디어는 보도와 관련한 것이든, 제

작과 관련한 것이든 상관없다.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물론 환영이다. 온라인 아이템든 오프라인 아이템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제안을 받는다.

예선전에 해당하는 1라운드가 펼쳐질 온라인 공간 주소는 1월 24일 그룹웨어에 공개될 예정이다. 접수는 1월 31일까지 단 일주일간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를 올릴지 미리미리 생각해 두는 게 좋다.

1라운드 아이디어 제출은 많은 이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간편하게 마련될 예정이다. 500자 정도의 짧은 설명 글에 필요한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링크 등을 첨부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단, 한 사람당 아이디어는 한 개만 올릴 수 있으니 가장 뛰어난 아이디어로 승부를 던져야 한다.

1라운드 평가는 동아미디어그룹 사원들이 누르는 ‘좋아요’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1라운드 문턱을 넘어 2라운드로 진출하면 77만 원의 응원금과 함께 1라운드에서 간략히 제시한 아이디어를 기획안으로 발전시킬 시간이 주어진다.

파이널 라운드인 3라운드 진출자로 뽑히면 비소스 아이템 제안자의 부캐가 아닌 실명이 공개된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아이템을 사내 구성원들에게 ‘피칭’하고 최종 결과를 받게된다. 최종 우승자로 낙점되면 777만 원의 상금이 제공되고 아이템 현실화의 기회도 주어진다. 이를 통해 공헌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해당 액수의 1%가 아이템을 제안한 우승자에게 지급된다.

윙스는 동아미디어그룹의 모든 사원이 콘텐츠를 탐색하고 꿈꾸는 크리에이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행사다. 신입부터 임원까지, 모든 사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강병규



임현석 기자 조선일보 신춘문에 단편소설부문 당선

임현석 경영전략실 디지털노베이션팀 기자가 <무료나눔 대화법>으로 2022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단편소설 부문에 당선됐다. 소설은 자신을 우리 사회의 평균이라고 생각한 중산층 남성 이 자기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 당근마켓 무료나눔과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깨달아가는 이야기다. 심사위원들은 <무료나눔 대화법>을 당선작으로 선

정하는데 이견이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심사위원들은 조선일보 지면을 통해 “이 응모작은 단편소설이 지녀야 할 미덕들을 거의 다 갖추었다. 필요한 이야기, 사건이 벌어지는 개연성, 인물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공감, 타인들이었던 서로에게 일어난 변화들, 그리고 유머까지. 날렵하고 영리하며 군더더기 없는 작풍이다”라고 평가했다.



수상소식

동아일보
이정은 논설위원
돈 오퍼도퍼 상



이정은 동아일보 논설위원(사재)이 12월 23일 제6회 ‘돈 오퍼도퍼 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미클럽이 선정하는 이 상은 한반도 문제 보도에 천착했던 돈 오버도퍼 전 미국 워싱턴포스트 기자를 기리고, 외교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인 언론인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논설위원은 2018년 12월부터 3년간 워싱턴특파원을 역임하며 한미관계와 관련한 특종을 다수 보도했다.

동아E&D 유아동 교구브랜드 ‘모아노리’ 론칭

동아E&D가 유아동 교구 브랜드 ‘모아노리’를 론칭했다. ‘모아노리’는 ‘모이다’와 ‘놀다’를 뜻하는 이름으로 엄마와 아이, 친구들이 서로 모여 놀이를 통해 배운다는 콘셉트로 구상됐다. 1년여에 걸쳐 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 캐릭터를 개발하고 이를 확장시킨 결과물이다.



모아노리에는 전래동화와 세계명작 스토리를 모티브로 한 ‘모아숲 친구들’이라는 동물 캐릭터들이 등장한다. 단순한 원작 재연이 아니라 놀이를 하는 아이가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고안됐다. 유아동의 창의력과 표현력 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모아노리는 브랜드 론칭을 기념해 지난해 12월 6일 <모아노리 그림카드 매칭게임>을 제작했다. 게임 출시

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텀블벅’에서 진행한 펀딩에서는 목표액의 246%에 달하는 금액을 모으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해당 제품에 대한 새로운 소식과 일러스트는 인스타그램에서 모아노리를 검색하거나 상단의 QR코드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동아E&D 디자인기획팀 박세연

신간소개 동아일보 권기범 기자



30대 중반에 낳은 딸의 1년간 육아 기록을 생생한 그림과 함께 담았다. 카카오프렌즈에 1년 간 올린 글을 모아 12월 출간한 책이다. ‘통째로 읽어야 할 것’, ‘아기의 인지 발달은 언제 시작되는가’ 등 육아 정보와 함께 현재를 살아가는 맞벌이 부모가 느끼는 애환과 고민도 함께 녹인 책이다. 그래서 책 제목도 <매일 행복했다면 거짓말이지>다.

동아일보 황규인 차장
문체부 장관 표창



동아일보 편집국 스포츠부 황규인 차장(사재)이 장애인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황 차장은 일본 도쿄 현지에서 2020 도쿄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을 심층 보도하고, 적극적으로 장애를 가진 체육인을 발굴해 소개하는 등 장애 인식 개선에 앞장서었다.

채널A 박지혜 기자
해수부 장관 표창



채널A 보도본부 경제산업부 박지혜 기자(사재)가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등의 성과를 알리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2월 31일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박 기자는 지난해 10월 부산신항 현장 취재를 통해 물류 대란 속 운송업체의 피해 상황을 현장감 있게 전달하는 등 해운 정책 이슈를 다수 보도했다.

▼ New face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이름 / 부서 ① 입사 후 포부 ② 요즘 관심사 ③ 최종 직장



이미형 / 동아일보
화상출판파트

①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신감을 가지고 빠르게 적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쌓아온 다양한 경험들을 적극 활용하여 동아일보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② 요즘엔 유튜브를 통해 간단한 영상편집을 배우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마음껏 여행다닐 수 있는 시기가 오면 여행 브이로그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③ SBS



문지은 /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① 디자인도 할 줄 아는 기획자의 꿈을 이룬 것 같아 행복합니다. 톡톡 튀고 재미있는 시도들, 열심히해보겠습니다.
② 사무실 책상을 어떻게 꾸밀지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귀여운 털 슬리퍼도 하나 장만하고 싶네요



최호진 /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① 지금 이 설렘과 간절함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기자로 사는 매 순간에 감사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② 코딩이 취미입니다. 오류를 해결하다 뜬눈으로 밤을 새우곤 합니다. 기술과 저널리즘을 접목한 콘텐츠를 훗날 꼭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전지원 /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① DBR과 제 색깔이 어우러진 재미있는 교육을 기획하며 재미나게 일하겠습니다!
② 평소 LoL이 취미라 다양한 게임 콘텐츠를 즐깁니다. 또한 두마리의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로서 동물 복지나 고양이와 제가 함께 사는 공간 인테리어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심은혜 / 동아일보
마케팅본부

① 초심 잃지 않고, 독자들에게 열정이 담긴 동아일보 신문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②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심이 생겨서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더불어 사는 사회로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전예은 / 채널A
편성전략본부

① 집요하고 진득한 관찰자로 부지런히 따라가겠습니다
② 좋은 길과 좋은 건축물 따라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걸으며 온전히 위안을 받습니다.